

청년부흥집회 _ The United Worship



청년부에서는 11월 11일(금)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가수 선을 모시고 청년부흥집회(The United Worship)를 가졌습니다. 가수 선은 다양한 모습의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청년부흥집회 때 간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을 주었습니다. 박원호 담임목사님께서는 설교말씀을 통해 현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회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공감해주시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비전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주셨습니다. 청년부흥집회가 단순히 하룻밤 은혜 받았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 때 받은 은혜와 품게 된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이정민 전도사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자(멘토) 모집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자(멘토)를 모집합니다.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분야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도	심리상담	찾아가는 요리교실	한국어지도
-유치원,초등,중학생 <멘토 자격사항>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재학 이상 주1회 2시간 이상 3개월간 봉사 가능한 자	<멘토 자격사항> 상담자격을 가진 자, 주1회 1시간 이상 3개월간 봉사 가능한 자 사회복지사(상담자격자) 의사(정신과 진료)	<멘토 자격사항> 한국의 주부로 성품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 주1회 1시간~1시간30분 8주간 봉사 가능한 자	<멘토 자격사항> 한국어교사3급이상, 사회복지자격, 교원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3개월간 봉사 가능한 자, 주 1회 2시간 3개월간 지속적인 봉사 가능자

지원서류: 1. 멘토 신청서(4층 교역자실)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한국어교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성경 _ 한자로 풀어보기

待臨節 (대림절)

그리스도(Christ), 메시아(Messiah), 예수(Jesus)의 聖經的(성경적) 의미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또는 성직을 부여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 한편 예수께 부여된 세 가지 직분(선지자 직, 왕 직, 제사장 직)이 내포된 거룩한 聖號(성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의 주체, 구원자, 의지할 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人名(인명)이 아닌 職名(직명)인 것이다.
예수는 成肉身(성육신)하신 聖子(성자)하나님의 이름이다.

待臨節(대림절)의 文字的(문자적) 의미

★待(기다릴 대): 많은 사람. 건달을 의미하는 𠂆(자축거릴 척, 두인변)과 사찰.

관청을 뜻하는 寺(절 사. 관청 시)가 결합되어 「많은 사람이 관청에서 민원의 차례를 기다린다」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臨(임할 림):엎드리다. 눕다의 뜻이 있는 臥(엎드릴 와)에 品(물건 품)을 결합하여 「엎드려 물건을 살필 때 시선이 아래로 임한다」라는 글자이다.

★節(마디 절):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卽(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주방부 가을 나들이



2011.11.04 (금) 문정새재 조령산과 예천 애플랜드에서 박원호 담임목사와 함께 많은 주방부봉사자들이 참여해 산행과 농장 사과따기 체험행사로 은혜로운 행사를 가졌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길을 걸으며 새벽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봉사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지만 함께한 시간의 따스한 마음이 겨울도 훈훈할 것만 같다.

안내부 주왕산나들이



11월 5일 (토) 안내부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주왕산을 다녀왔다. 주일에 4부로 나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에 만날 시간은 서로 없지만 산에 오르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줄줄 흘러내리는 계곡물처럼 단풍처럼 즐겁기만 하다. 땀은 흐르지만 가을바람 속에 마음은 시원해짐을 느낀다. 가을바람에 비워지는 것 가을바람에 하얀 머리로 가려워지고 있는 무거운 것, 복잡한 것, 세상사 다 내려놓고 바람결에 일렁이며 바람에 되어가는 우리들도 가을 단풍이 되어보기를 바랬다.

복지사역팀 - 태안반도, 해미를 다녀오면서



10월 29일(토) 복지사역팀에서 독거노인 영양죽 나눔팀과, 가락동, 거여동 어르신 식사 나눔팀의 30여명 봉사자들과 태안반도를 다녀왔다. 소중한 고운 추억으로 남은 하루의 동행을 안면도 꽃치 해수욕장에서 바닷가에 앉아 함께 그 빛에 물들이고, 그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김치담그기 - (사) 섬김과 나눔 소식



‘섬김과 나눔’과 거여3단지 노인회에서는 바닷물에 절인 서산 팔봉 배추 20kg짜리 20박스를 주님의교회 봉사팀과 다문화가정 외국 며느리들과 거여3단지 부녀회 등 20여명의 봉사자들이 거마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드리기를 위하여 23일 (수)

에 거여3단지 노인정에서 정성껏 김장을 담아 24일(목) 각 가정으로 영양죽과 함께 직접 배달하였다. 200포기 김장거리지만 참가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포장을 하며 배추 양념버무리는 다문화 며느리들의 작은 손길과 즐거워하는 마음, 양념을 넣고 배추를 찌는 작은 손길에서 추운 겨울, 따스한 사랑을 느껴본다.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_ 히 10 : 24 - 25

통 권 제 293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1년 11월 27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청소년의 다른 이름, “교회의 미래”



은혜와 열기 충만했던 청소년 사역 세미나

“지난 2009년 청소년 사역 세미나를 시작한 이후, 이번
에 가장 많은 사역자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 청소년사역원(이하 ‘청사원’)의 실무를 맡아 섬기
고 있는 류은정 목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9번 개최되는
동안, 보통 80명에서 150명 정도가 참여하셨거든요.”갈
수록 참여하는 사역자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2011년 제3차 청소년사역 정책 세미나는 “성경은 하나
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딤후 3:17 새번역)의 말씀을 바
탕으로 기획되었다.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의 특
강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교육의 미래’로 개막하여 오
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가 지나도록 열기를 띠며 진
행된 세미나는 특히 “TED로 여는 다양한 청소년사역”
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채를 띠었다. 2011년도 주님
의교회 ‘청소년 집중 사역’의 하나였던 ‘성경과 연계한
중 고등 교과서 새 커리큘럼’ 제작의 시사회도 이루어졌
다. 청소년 사역 세미나는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는 전
국 각지의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며, 3월에는
연간 사역 계획을, 6월에는 여름 수련회와 2학기 사역을,
11월에는 다음해의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의 믿음은 교회 부흥의 숨은 역사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은 성경과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순수한 영혼이 하나님

지난 11월 21일,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는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청소년 사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전문 강사 12명과 원근 각지에서 온 사역자 170여 명이 참여
하여 하루 종일 깊은 은혜를 받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의미와, 주님의교
회의 청소년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 편집자

을 영접하는 순간, 역사적 영적 부흥의
부싯돌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골리
앗 앞에 당당히 나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소년 다윗이었
고,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갔으
나 깊은 믿음으로 곤경을 기회로 바꾼
요셉도 청소년이었다. 유다의 영적 운
동을 일으킨 요시아는 16세때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에스더도 지금의 고등학생 정도
의 나이였던 터이다. 1700년대 유럽 부
흥운동의 출발은 16세의 소년이었던 독
일의 니콜라스 진젠도르프와 그 친구들
이 만든 ‘겨자씨 알곡의 법칙’이라는

기도 모임이었다. 진젠도르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10대
였던 영국의 웨슬리 형제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형이었던
존 웨슬리는 영국국교회에서 감리교 운동을 창시하게 되
었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최근의 미국 교계 상황은 청소년 부흥과 관
련한 교회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 미국 개신교의 상징이였
던 초대형 교회인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가 파산하고, 가
톨릭 교구에 매각되었다는 최근의 보도는 교회가 바른 길
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
이기도 하지만, 한편 날로 쇠퇴해가는 미국의 기독교계를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노스파크 신학교의 라승찬 교
수에 의하면, 미국 주류교단들이었던 감리교, 장로교, 루
터교들은 해마다 25%의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0년 동안 이들 교단의 교인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
다. 그러나 한때 이들 교단과 교세가 비슷했던 남침례 교
단은 현재 천 6백만이 넘는 교인을 자랑하고 있고,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러 다른 까닭도 있겠지만, 일
찍이 ‘청소년이 교회 부흥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청소
년 부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단의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남침례교
단은 다른 교단과는 달리 청소년 전임 사역자를 1937년부
터 두기 시작했고, 신학교에는 전담 교수를 1949년에 임명
했으며, 청소년 사역 컨설턴트 제도를 1973년도에 만들었
다. 지금도 남침례교 교회들은 청소년이 50명만 넘어가면
전담 전임 사역자를 둔다고 한다. 그 결과 ‘브라운우드 부

흥운동’, ‘월드 체인저스’ 등과 같은 청소년 부흥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청소년 사역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교회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
가는 교회”라는 2011년의 슬로건과 같이 청소년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체계적으로 집중해 왔다. ‘청소
년 집중 사역’을 위해, 교육부서와는 별도의 독립부서로
지난 2009년 청사원을 개원했다. 청사원은 교회 내적으로
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학원 사역을 활성화하며, 궁극적
으로는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한국의 청소년들의 믿음을
키우고, 청소년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인터넷사역, 세미나사역, 문서사역, 문화사역, 리더 세
우기 사역, 교육협력사역, 복지사역의 큰 갈래 아래 하나
씩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 사역 세미나도 청사원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이다. 또한 문서사역의 하나로, <아
침> 묵상집을 발행하여 보급해왔다. 지금까지 4집이 발
간되었는데 1,200부 정도를 펴내며, 500부 정도를 교회 내
중고등부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요청하는 미지킴 교회에
제공한다. 학원 사역과 반가운학교 역시 청사원에서 빼 놓
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 학원 사역은 가정-교회-학교
를 잇는 모델로, 정신여고 2학년 14개반을 담당하는 기도
어머니회, 정신여중을 담당하는 사랑어머니회로 구성되
어 있다. 총 12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담당하는 반별로 학
생들과 종교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간식과 함께 말씀 쪽지
를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섬기고 있다. 정신여고의 축제인
예랑제에서는 학생들과 세족식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
누기도 한다. ‘반가운학교’는 교회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와 함께 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반갑게 맞아서, 학교 교과목부터 피아노와
같은 예체능 과목, 논술 지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키우는 것이 반가운 학교의 뜻”이라는 담당 손천
숙 권사의 말이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실용음악을 교회에서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뮤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여름방
학에는 “뮤직 컨퍼런스”프로그램을 열고, 다른 교회 청소
년들을 초청하는 위십 캠프를 갖기도 했다.

< 2면에 계속... >

주간 목회력

<새생명축제> -초청일 12월 18일
-STEP4 : 12,3(토) 오후8시/중예배실
<2011 향존적 피택자 교육>
-11.27(주일) 오후3:30 / 초등부실

<유아세계신청>
-11.27(주일)부터 신청 / 1층 안내데스크
<2012 요람 발간을 위한 사진촬영>
-11.27(주일)~12.11(주일) / 1층 로비

<북한동포 돕기방한복 모집>
-11.27(주일)~12.4(주일) / 1층 안내데스크
<새벽기도 헌신자 모집>
-11.27(주일)~12.11(주일) / 1층 로비

대림절이란 무엇인가?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교회역사에

서 대림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림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력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력(Church Calendar)이란 라틴어로 “Annus Ecclesiasticus”로 표현하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을 배열한 달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행적을 1년을 주기로서 기념하기 위해서 형성된 교회력은 그 1년을 <전례력 년(church year)>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3대 절기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계승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난·죽음·부활을 의미하는 유월절과 그 50일째에 일어난 성령강림절을 매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2대 축일, 즉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입니다. 특히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준비를 위해서 성서의 적합한 낭독할 곳이 정해지고, 40일간, 세례 준비가 행하여졌는데, 이것이 사순절(Lent)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새로운 신자의 교육을 위해서 적합한 성서의 낭독할 곳이 선정되어 부활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에서 중요한 것은 1년의 주기만이 아니라 1주일의 주기입니다. 7일째를 안식일로서 노동을 쉬고, 예배 집회를 행한 구약의 회당의 습관은 그 다음날, 주의 첫째 날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계승되며, 일주일의 주기는 인류역사에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은 그날에 낭독되는 복음의 행적이 기념되는 주님의 축일인 동시에, 매주 축하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교회력은 주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축하하는 주님의 축일은 주로 주일(일요일)에 해당하는데, 미트라스코의 태양의 탄생일제가 기독교화 하게 되고, 동서교회의 교류도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에, 주현절이 1월 6일에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은 기독교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독교의 중요절기인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는 달리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레고리력이 1월 1일로 한해를 시작한다면, 교회력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待臨節)이란 말은 영어로 “Advent”로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되었다. 대림시기 또는 대강절·강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이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림절은 507년 투르 공의회에서 지정되었으며, 이때는 성탄절 전 40일간 지켰습니다. 하지만 9세기부터 성탄절 전 4주간 지키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는 천주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의 글을 보면, 그 당시에 강림(Adventus)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臨在)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강림절은 갈리아 지방에서는 4세기에 에피파네스 절기(1월 6일) 앞에 금식하며 지켜졌습니다. 그리스 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크리스마스 이전에 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다가 6세기경 처음으로 성탄절 이전의 절기로서 등장하였습니다. 8세기의 이말라리우스의 메츠의 글을 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로 지켰음이 드러납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

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절기로서 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지켜왔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준비기간으로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성탄절 이전 네 주간 동안 지켜지는 절기로서, 성탄절 이전 네 번째 주일이 첫 강림절이고 이날 강림절 화환에 준비된 네 개의 촛대 가운데 한 곳에 불이 붙여 집니다. 두 번째 주일에 다시 촛불이 하나 더 켜집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일은 모든 촛불에 불이 켜집니다. 설교자는 그 주일에 해당하는 성서구절로 설교합니다. 교회력에서 있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로운 대림절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 주님의교회 이강찬 목사 >

대림절의 초사용의 의미

대림절은 4주간 지키며, 각 주마다 다른 색상의 대림 초에 불을 붙이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 ① 1주: 1개 점화, 진보라색, 세상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와 경고)
- ② 2주: 2개 점화, 진보라색, 연보라색,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함.
- ③ 3주: 3개 점화, 진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
- ④ 4주: 4개 점화, 진보라, 연보라, 분홍, 하얀색 (또는 모두 흰색이나 보라색), 성모 마리아의 그리스도 수태에 대한 기쁨.

변화하는 사대의 청소년, 사역 현장의 어려움

청사원의 꿈은 물론 현재에 있지 않다.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연합하여 청소년을 품어 키우는 것이 설립 이념이므로, 이에 걸 맞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기획중이다. 2012년에는 성경과 연계한 중고등 교과서 커리큘럼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성인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12단계 성경공부’와 같은, 정기적인 청소년 제자훈련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 중이다. 이밖에도, 부모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각 분야 전문가인 교인들과 청소년을 연계하는 멘토링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뜻 있는 일을 감당하기에 난관이 없지 않다. 특히 사역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영향을 미치는 세속적인 문화의 변화도 빠를뿐더러, 중등부의 경우, 사춘기에 갓 들어선 중학생들의 성숙도나 사회성의 편차가 크

다 보니, 웬만한 교역자나 교사들은 이들 각각과 깊이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고등부 공히, 학교 성적에 대한 압박이 극심하기 때문에, 공부 외에 다른 얘기를 하기도 어렵다. “어떨 때는 아이들과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죠.” 중등부 교사로 7년째 섬겨온 장광희 집사의 말이다. “일대일로 부대끼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 아이들이 마음을 겨우 여는데, 주일 예배와 공과 한 두 시간만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교회의 관심이 형식적인지 진정된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챈다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사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의 아프리카 속담이다. 류은정 목사는 “물론 청소년 사역의 중심은 담임 교역자와 교사들의 진정한

헌신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의 노고에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다만, 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 있는 성도들께서 더 많이 교사로, 또 지원 인력으로 자원해 주신다면, 현재 온 몸으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과 함께 더 뜻 깊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청사원에는 박혜성 목사를 비롯,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를 포함한 교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청사원을 책임지고 있는 박혜성 목사는 ‘청소년 사역’은 ‘찬양, 말씀, 기도’가 핵심이며, 입시와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엄마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보듬는 것이지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엄마의 일’이 바로 청소년 사역입니다.” 박혜성 목사의 말이다.

< 편집부 >

교육목회원 <팝콘트리_중등부>

팝콘트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팝콘트리는 주님의교회 중등부의 이름입니다. 특이한 이름이죠?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등부에 처음 온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POP - People Of Prayer (기도의 사람들의 약자)

CORN - CORNestone (모퉁이돌)



그렇습니다! 팝콘트리는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로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알곡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팝콘트리 중등부를 위해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며,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등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중학생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팝콘트리 중등부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공동체입니다. '팝콘지기 교사기도회'에서 중등부 친구들과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홀리씨드 기도회'(HOLY SEED)에서는 학생들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정신여중 기도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만나 기도합니다. '학부 모초청예배'를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팝콘트리의 예배 및 활동>

매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까지 지하1층 중예배실에서 드려지는 팝콘트리 예배는 학생 예배사역팀의 섬김으로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하모니 인 지저스' (HARMONY IN JESUS) 기악팀은 예배의 시작과 특송순서에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인 지저스(ALL IN JESUS) 찬양팀은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인도하고, 리브 포 지저스(LIVE FOR JESUS) 워십팀은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후에는 반별로 설교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공과학습(Sharing & Action)이 진행되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매일 청소년묵상집 <아침>을 통해 QT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팝콘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전도를 위해 '친구초청예배'와 '정신여중 전도행사'를 했으며, 'Amazing Grace 구제헌금', '장애인 공동체 돕기' 등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팝콘트리는 '뮤직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직 아카데미는 음악에 달란트를 가진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여 그들이 청소년부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개설강좌로는 보컬, 건반, 통기타,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학생이 있으시다면 팝콘트리로 보내주세요.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자라가겠습니다. 또한 팝콘트리 중등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의 알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심진희 목사 _ grimsim@hanmail.net >

중보기도사역팀 가을 나들이



가평 필그림하우스로 중보기도팀 11월3일(목)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좋은 사람들이 주는 평안함과 행복, 좋은 날씨가 주는 포근함, 평일의 고즈넉한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는 벅찬 행운이었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을 부르며 귀한 곳에서 귀한 마음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시편 114편 말씀으로, "모든 삶은 구원에 기초한 삶이며 시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담당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했다. 함께한 사역자들은 명상과 침묵 속에서 영적 성장을 바라며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며 깊은 신앙 속에 자신의 고백을 기도하는 은혜로운 하루를 보냈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산

산에게서 듣습니다.
침묵속에 계신 당신,
과묵하게 우뚝 선 산에게서 배웁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바위에게서 배웁니다.
언제나 그 자리 오랜세월을 견뎌온 바위에게서
말 없는 말로 마주하는 당신을
눈을 뜨지 않아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끝 닿은 산과, 제철 입은 나뭇잎들의 향연

귀를 열지 않아도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산모퉁이 바위틈을 돌아 일렁이는 바람결에 들리는
당신의 나즈막한 목소리
입을 열지 않아도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발밑에 스러지는 낙엽, 날개되어 날아가는
이름 모를 꽃잎의 노래

풀길없이 엉켜진 삶의 오해들이
하나... 둘... 셋... 오늘 이곳에서 풀려져 내립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이 자연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머리고 나는 산이 됩니다
당신을 아는 나는 하나의 작은 산이 됩니다.

중보기도월례회로 다녀온 필그림 하우스에서.

< 지은이- 라파 1팀 한상숙 >

알고계세요?



주님의교회의 자랑 '주일에 먹는 국수의 맛'은 주중에 먹는 국수의 맛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방부 봉사자님들과 각 구역마다 봉사순서로 주일 주방봉사를 드립니다. 국수는 주일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지만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봉사자들의 휴식과 말씀 나눔과 기도로 30분 동안은 국수를 드실 수 없습니다. 봉사자들의 은혜의 시간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